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의 인생 전체적으로는 믿음으로 행하였지마는 그가 범한 한 가지 실수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부부의 딸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이러한 친분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고 아합이 전사한 그 전쟁에서 자신도 역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선지자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맺은 사돈 관계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그 후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현실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한 일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합이 따르던 우상을 그대로 따르는 등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고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금과 은을 비롯한 보물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은 후 왕이 된 여호람은 자신이 세력을 갖게 되자 자신의 아우들과 몇몇 이스라엘 방백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아합과 그의 집이 따르는 악한 길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이와 같이 아합이 행한 악한 길을 따른 이유는 아합의 딸 즉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민족과 결혼을 금하신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결혼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올 우상을 금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아 한 아내가 우상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의 남편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방 민족 출신의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였지마는 오히려 자신들이 믿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 믿음의 여인들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이 그랬고, 여리고에 살던 라합이 그랬으며, 모압 족속이었

던 룻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계보에도 기록이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출신으로 이방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달랴의 어머니인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이세벨은 아합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왕이 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러한 악행은 그들의 딸인 아달랴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고 이제 아달랴는 유다의 여호람과 혼인하여 여호람도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21장6절에는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유다에 사는 백성들을 미혹하였고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 하게 하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을 유다에 있는 산에 세움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도록 미혹함과 동시에 그 산당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편지에 보면 여호람의 악행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 하듯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으며 게다가 자신의 아우들을 모두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람은 유다에서 팔 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여호람 후에는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아하스(21:17) 혹은 아사랴(22:6)라고도 불리는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끌려가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이 따르는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는데 오늘 본문 22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아합의 집을 따라 악을 행하였다고 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 때문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력은 여호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여호람과 결혼하여 자신의 집인 아합과 이세벨의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에서도 유다 왕국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때로부터 시작된 아합 집안과의 관계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삶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시돈의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하였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의 결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우상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우상을 전하여 북 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사상 최악의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인 아달랴를 남 왕국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시킴으로 이제 여호람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마져도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가지 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신부로 불러 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은 주님을 떠나 사탄 마귀의 미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과 같이 음란한 신부가 되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 자신의 영혼이 죽는 것이며 동시에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 자신과 그의

집안에 속한 영혼들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분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주위의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